해남 땅끝 캠핑카 연말·연시 대박

체험 즐기려는 가족 관광객 몰려
내년 1월 초까지 예약 완료

'땅끝 캠핑카에서 해넘이, 해맞이를 즐긴다'

올 여름 매진 행진을 기록한 해남 송호리 해수욕장 내 오토 캠핑장이 연말·연시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12월 초부터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내년 1월 6일까지 대부분의 캠핑카 예약이 완료됐다.

캠핑카는 이색적인 체험 관광을 즐기려는 가족 단위 관광객과 연인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4명이 함께 숙박할 수 있는 캠핑카는 2층 침대 1개, 2인 침대 1개, 화장실, 샤워시설, 조리시설, 위성TV, 냉·난방 시설 등 각종 편의 시설이 설치돼 있다.

특히 집안의 부엌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완벽한 조리시설을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오토 캠핑장의 또 다른 인기 비결은 도보로 2분 거리에 있는 송호해수욕장. 국토 최남단에 위치한 송호해수욕장은 수백 년 된 해송(海松)이 제방을 따라 1㎞가량 이어져 있으며, 수심이 낮고 백사장이 깨끗해 전남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으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승용차로 5분 거리엔 '국토 순례의 메카'인 땅끝 전망대와 공룡 유적지, 해양자연사박물관 등 다양한 관광자원도 산재해 있다.

지난 20일 회사 동료들과 함께 1박 2일을 캠핑카에서 보낸 서원용(32·광주시 동구)씨는 "모처럼 도시를 떠나 공기 맑고, 자연 경관이 뛰어난 땅끝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면서 "특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 뜻깊은 1박 2일이 됐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김보성 해남군 땅끝 관광지 담당은 "초·중·고생의 자녀를 둔 가족단위 여행객들의 방문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평일 예약의 경우 최소 2주일 전, 휴일에는 한달전에 예약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땅끝 4인용 오토캠핑카(1대당 3천만원)의 이용료는 평일 3만원과 휴일 4만원이며, 7~8월 성수기때는 각각 8만원과 10만원이다. 문의 (061-530-5544)

/해남=박진표기자 lucky@

화순·고흥·완도에 '유통회사' 설립된다

정부 50억 지원 2010년 본격 가동
농산물 저장시설 등 유통구조 개선

화순군을 비롯해 고흥·완도에 정부 지원을 받는 농업유통회사가 설립돼 지역농산물 유통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

이들 3개 군은 지난 24일 농림수산식품부가 확정 발표한 시·군 유통회사 설립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시·군 유통회사란 전문 경영체제를 갖추고 시·군 단위 이상으로 규모화된 농수산물 판매 전문회사로,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농업인이 공동 출자해 운영하게 된다.

이에따라 생산-홍보-유통-판매 단계의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할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010년부터 본격 가동될 화순 농업유통회사는 계약 재배와 저장시설 확보로 농산물 공급을 조절하고 전문CEO로 하여금 유통·판매를 담당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회사가 설립되면 교육과 브랜드 육성, 홍보 등을 위한 운영 자금 20억원(회사당)을 3년간 분할 지원한다.

또 30억원 규모의 원물 확보 자금을 저리(1%)로 융자해주고 법인 및 최고경영자(CEO) 선정 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형 소비처와의 직거래 알선 등도 해줄 계획이다.

한편 화순군은 그동안 농업발전 3단계전략을 추진하면서 유통구조 혁신에 주력해 왔다. 지난 4월에는 10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자연속 愛'를 출시했고 생산자와 소비자간 실시간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파머리아 시스템'도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전완준 화순군수는 "현재의 세계 경제 위기가 오히려 농업발전의 당위성과 우리 농산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함평 무지개 가래떡 사세요 함평군 생활개선회(회장 정봉숙)가 쌀 소비 확대를 위해 판매하는 무지개 가래떡이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무지개 가래떡은 단호박(진노랑), 복분자(연보라), 쑥(녹색), 감(연노랑), 자색 고구마(보라), 백년초(분홍), 흑미(검정) 등을 넣어 빛깔 고운 웰빙 식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문의 (061-323-4676)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담양 농특산물 서울직판장 '애물단지'

판매실적 부진·관리부실 예산만 낭비

담양군이 수도권 시장개척을 위해 개설한 농특산물 서울 직판장이 관리부실 등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담양군은 지난 8월 30일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임대료 11억 원 등 13억3천여만 원을 들여 150㎡ 규모의 매장과 별도 사무실 등을 갖춘 농특산물 직판장을 열었다. 군은 독자적으로 특산물 매장을 운영하다가 실패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해 농협, 축협과 협약을 통해 물품 공급과 운영 등을 맡겼으나 판매 실적이 극히 부진해 설립 목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담양 농특산물 서울직판장에는 축협과 농협 상주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어 이들 인건비와 건물 관리비 등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하루 600만 원의 매출을 올려야 한다. 그러나 개장 이후 지난 11월 11일까지 72일간 매출액은 2억 1천여만 원으로, 하루 평균 300만 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관리 부실로 지역 특산품의 명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담양군 의회는 최근 현장조사를 통해 토마토나 멜론 등 농산물이 말라 있고, 20여일이 지난 도축 검사증이 게시돼 있는 등 부실한 물품 관리 상황을 확인했다.

또 진열된 상품의 70%가량이 공산품이어서 농특산품 매장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농수산물 시장 인근에 위치해 가격 경쟁력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담양군 의회는 집행부가 인테리어비 명목으로 올린 내년 예산 3천만 원을 삭감하고 매장 폐쇄 등 전면적인 운영방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당장 수익을 따지지 말고 장기적인 홍보 효과를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하다"며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은 인정되는 만큼 농협, 축협 관계자들과 대책회의 등을 통해 지적사항들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정훈기자 cjob17@

"광어를 학교 급식·군납 식재료로"

완도군, 전남도·중앙 기관에 건의키로

완도군이 광어를 학교 급식 및 군납 식재료로 공급해 줄 것을 관련 부처에 건의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로 위축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완도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종합대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완도군 경제대책위원장인 임정환 부군수를 비롯해 금융기관 사회단체 농공단지협의회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경제난극복 대회를 갖고 기업사랑 상품사주기 운동 등 21건의 경제대책을 마련,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양식 어가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광어를 학교급식 및 군납 식재료로 공급해 줄 것을 전남도와 중앙 관련 기관에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완도지역 관내 광어 양식어민들은 수입활어 급증과 사료값 인상, 소비부진 등 삼중고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정환 완도 부군수는"중앙정부와 완도군이 전남 서부어류양식 수협, 생산자 단체와 함께 '광어 & I LOVE'등 범국민적인 완도광어 소비촉진 운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지역경제난 극복에 많은 군민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나주 '드림 생미' 최고 명품쌀 입증

전국 유통 쌀 BEST 12
3년 연속 우수 브랜드

나주 동강농협 '드림생미'가 전국 최고의 명품쌀로 입증됐다.

동강농협 드림생미는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농림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2008 전국 시중 유통 브랜드 쌀 BEST 12 평가'에서 우수 브랜드로 선정됐다.

특히 드림생미는 3년 연속 우수 브랜드 쌀로 선정돼 농림부장관상과 100만원의 상금을 받았으며 향후 2년간 농림부 지정 'Love米' 표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드림생미는 첨단도정시설에서 가공돼 완전미 비율이 높은데다 영양이 풍부하고 고소한 향은 물론 밥맛이 담백하고 찰기가 좋아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 친환경 생산토지에 벼를 재배하고 화학비료 억제를 위해 친환경비료를 무상지원하는 계약재배와 병해충이 심하거나 쓰러진 벼는 수매하지 않는 엄선된 재배와 가공과정을 거쳐 고품질 쌀로 생산된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공무원들의 훈훈한 이웃사랑

화순 능주면, 장애인 가정 봉사활동

화순군 능주면(면장 윤영재)이 연말을 맞아 훈훈한 이웃사랑을 펼치고 있다.

화순군 능주면은 '아이러브(I Love) 화순' 운동 일환으로 지난 19일 관내 지체장애인 가정을 찾아 봉사활동을 벌였다. 〈사진〉

이날 능주면 직원 20여명은 집 안팎을 청소하고 도배, 싱크대 교체작업은 물론 가재도구 등을 정리하고 성금을 모아 전기 판넬도 설치했다.

능주면 재래시장상인회(회장 변영준)도 장애인 가정에 겨울이불과 주방도구 및 의류 일체(4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